제4실　법구 | 전시 해설

N-242 사리탑

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의 유골로 여기는 사리를 안치하여 모시기 위한 보탑 형태의 용기. 기단 뒤의 먹으로 쓴 글씨에서 1138년에 수리된 것을 알 수 있다. 호류지 도인의 샤리덴(호류지 경내 건물)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추청된다.

N-300 칡 상자

원래는 함의 본체 부분으로 뚜껑은 소실되었다. 칡의 껍질을 감으면서 상자를 짜고 소목으로 붉게 물들여 옻을 칠했다. 상자의 가장자리에는 대나무로 만든 테두리가 부착되어 있고, 상자의 안에는 <가사(승려가 입는 법의)>(N-35)가 담겨 있었다.

N-279 색 발

발은 승려의 도구로서, 혹은 석가와 보살에게 음식을 공양할 때 사용했다. 틀에 삼베를 대고 옻으로 칠하는 과정을 반복해, 여러 겹을 겹쳐 형태를 만드는 건칠 기법으로 만들었다. 일본에서는 나라시대에 불상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.

N-278 나무 발

목제에 옻을 칠한 발. 불룩한 어깨, 오므라진 입구, 좁은 바닥의 형태이다.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온화한 느낌을 주는 윤곽선을 가지고 있다. 쇼토쿠태자와 깊은 관련이 있고, 달마대사가 사용하던 물품이라는 전승이 있다.

N-14-부속 불명경 상자

목제에 옻칠을 한 간소한 상자. 제작 기법으로 인롱의 뚜껑 형태 기법이 사용되었고, 불명경을 보관했다. 뚜껑의 안쪽에는 헤이안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시대 무렵의 글씨체로 963년이라는 연도가 각인되어 있어, 이 작품의 제작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.

N-284 여의

여의는 승려가 법회 등에서 설법을 할 때 손에 들고 위엄을 갖추는 의식용 도구로, 효자손 형태의 기원이기도 하다. 이 작품은 물소의 뿔로 만들었으며 상단의 머리 부분이 작고 전체적으로 가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는 나라시대 이전의 특징이다.

N-241-1 백만탑

764년에 일어난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난 이후, 진호국가(국가를 안정시키고 지켜냄)와 멸죄(죄악을 소멸시킴)를 위해, 나라 지역 근처 10곳의 절의 10만 개의 무덤에 안치한 작은 크기의 삼중탑. 탑의 몸체에 있는 세로로 난 구멍에 상륜(탑의 꼭대기 부분에 있는 금속제 장식)을 끼워 놓은 구조로 제작되었으며, 그 구멍에는 다라니경이 보관되어 있었다.